

교회소식

나부 성전 재건축

교회의 두 번째 성전이었던 나부 성전은 1846년에 헌납되었다. 한때 이 성전은 일리노이 주를 가로 흐르는 미주리 강 동쪽 강가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초기 교회 회원들이 강제로 이 도시에서 쫓겨난 후 1848년에 불타 없어졌다. 후에 돌풍이 닥쳐와 타다 남은 잔해를 와해시켰고, 폐품업자들이 커다란 석회암 석재들을 떼어 갔다. 단지 몇 개의 장식돌이 남아 현재 보관 중이다.

1999년 4월 연차 대회가 끝날 무렵,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우리는 나부 성전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교회의 한 회원과 그분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성전이 건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계사들이 이미 이 일을 착수했습니다. 이 성전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참여자들로 그다지 붐비지는 않을 것이며, 참여자들이 다소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매우 바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축 건물은 미시시피 강둑에 최초로 그러한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을 기리는 건물로서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1.6 헥타르에 이르는 교회 소유의 성전 부지는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성전 기초와 지하층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전시해 놓은 가운데 아름답게 조경되었고 정교한 철조망에 싸여 보호되고 있다. 지난 해 교회는 카톨릭 수도원 및 학술원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던 성전 부지 서쪽에 있는 3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매입했다. 교회는 여러 개척자 건물을 복원했으며 유서깊은 나부에 큰 방문자 센터를 지었다.

단지 8주 동안만 운영되었던 나부 성전은 방이 60여개 있었고, 1 내지 2미터 두께의 담회색 석회암 벽과 50 미터 높이의 첨탑이 있었다. 성전의 종은 마차에 실어 슬트레이크 계곡으로 운반했으며 현재 템플 스퀘어에 있다.

아데 다미아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새로 부름을 받은 아데 다미아니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수년 동안 봉사하면서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가운데 훌륭하게 훈련되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변화는 자신이 총관리 역원으로서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오로지 주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제가 앞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도 오로지 주님의 도움입니다."

그는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었으며 계속해서 브라질 남 지역 회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할 것이다. 그는 선교부장, 상 파울루 선교사 훈련원 원장의 보좌, 지역 복지 책임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고등 평의원, 감독 등이 있다.

브라질 태생으로 (1939년 12월 18일생), 그는 후에 자신의 아내가 된 발키리아 브론즈에게서 복음을 소개받은 후 1961년 5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1961년 3월에 침례를 받았다. 1963년 3월에 결혼한 그들은 두 자녀와 다섯 손자녀를 두고 있다.

다미아니 장로는 아내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한 지지"를 하며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내조해 주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주문 생산하는 회사인 SEDA 테크놀로지의 소유자와 동업자로 일하다 은퇴 했다.

다미아니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자신의 큰 책임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간증은 구세주에 대한 몰몬경의 증거에서 배운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간증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강해졌으며 특히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면서 복음이 선교사들과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더욱 커졌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나누기를 기뻐한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오늘날의 예언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새로 부름 받아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이 된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는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이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름 받을 당시 그는 아르헨티나 부



에노스 아이레스 남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일해야 합니다. 저는 왕국이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39년 7월 9일에 오레곤 주 그래스 밸리에서 매릴 오브슨과 맬 버그 오브슨 사이에 4 자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오레곤 주에서 성장하여 브리감 영 대학을 다니다가 북메시코 선교부에서 1956년부터 1959년까지 봉사했다. 귀환 후 재정과 은행업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에 복학했을 때 에리조나 주 템플에서 온 딕시 랜들을 만났다. 1960년 9월 7일에 그들은 에리조나 성전에서 결혼했다. 1961년에 브리감 영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들은 템플로 이사했다.

오브슨 형제는 금융 및 은행계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았다. 1970년에 그는 미국에서의 첫번째 올 스위트 호텔 체인인 그레나다 로얄 homotel의 설립자를 위해 일하려고 자리를 옮겼다. 이 체인은 궁극적으로 엠버시 스위트가 되었다. 1985년에 오브슨 형제는 자신의 호텔 개발 및 관리 회사인 - 스위트 싱킹사를 시작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샌 존 카피스트라노에 살고 있는 오브슨 부부는 슬하에 6남을 두었으며 15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가 모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브슨 가족은 언제나 스포츠와 야외 활동을 즐겼다. 지난 25년간 그들이 소중한게 간직해 온 추억은 포웰 호수로 가족 휴가를 떠난 것과 유타로 스키 여행을 했던 기억이다. 아들들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다.

오브슨 가족은 두 살 난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겪었다. 지금 어린 아들을 잃어 버린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오브슨 형제는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인디아 마드리드에 있는 불우한 아동들을 돌보는 재단인 패트웨이에 참여하고 있다.

감독, 스테이크 선교사,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성전에서 성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해 온 오브슨 장로는 "저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제가 따라야 할 계획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축복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제 능력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최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는 1936년 6월 16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집에서는 영어로 말하고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말하며 성장했다. 10세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그는 십대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보내면서 여름이면 코도바 근처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1951년에 침례를 받은 그의 모친은 자녀들이 브리감 영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타 주 프로보로 이사를 했다. 데이비드가 브리감 영 대학에 왔을 때는 18세였다. 한번은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교회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보았냐고 물어 보았다. 데이비드는 "이삼년 되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의사는 그를 바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 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시간이 너를 위해 결정을 내릴 거야." 그 말이 그의 마음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아, 데이비드는 응답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6주 후에 침례를 받았다.

스톤 장로는 스페니쉬 어메리칸 선교부에서 봉사를 했고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직장을 찾아 떠났다. 집에 들렀을 때, 로잘리 에릭슨을 만났다. 첫 데이트를 한 후, 서로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졌다. 9일 후 그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시카코에서 로잘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은 1966년 2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1967년에 그는 질레트 회사의 아르헨티나 영업부장이 되었다. 그는 회사에 16년간 다녔다. 그 동안 그들 부부는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에릭은 뉴욕에서 태어났고, 안젤라와 아르헨티나에서, 줄리아는 페루에서, 캐롤린은 보스턴에서, 마이클은 아르헨티나에서, 조나단은 영국에서 각각 태어났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네 나라에서 6차례 감독으로 봉사했다. 다른 직책 이외에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 지역 대표로서 봉사했다.

1986년에 그는 블랙 앤드 데커 회사로 이직해서 1994년에 은퇴를 했다. 1996년에 이들 부부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스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중역으로 일했던 경험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라고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장로는 부인인 체릴과 여섯 자녀들과의 삶에 대해 말했다. "제 아내는 아이들의 이름과 "우리는 함께 행한다."는 모토를 적힌 가족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낚시, 보트 타기, 사냥, 일, 나무 모으기 등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힘써 일하면서, 언제나 그 일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했으며, 끝날 때에는 야외 요리 파티나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당시, 스투키 장로는 영국 맨체스터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교부에 임할 때 그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모두 저희 가족, 곧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각기 선교사로 지도자로 회원으로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1932년 12월 1일,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태어난 스투키 장로는 유타 주 산타 클라라의 인근 농장에서 성장했다. 1955년에 그는 체릴 콕스와 결혼했고 1957년에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현재 그들은 17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덕시 대학과 유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스투키 장로는 식료품 판매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미국 서부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었다.

"조직하고 계획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교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화하게 연마하는 교회의 영향력 덕분에 저는 보다 나은 고용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인트 조지 유틸리티 위원회, 유타 학생감평의회, 유타 경제 개발 협력 기구 등에서 봉사를 했다. 그는 또한 유타에서 비정기 항공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은 스카이 웨스트 항공사로 성장했다.

스투키 장로는 교회에서 스카우트 및 청남 지도자, 감독, 스테이크 부장,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몹시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축복을 결실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에 대해 감사했고 언제나 하나님께 빛진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 드리려고 애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분께 봉사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는 가족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경험을 하는 가운데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경험은 그가 칠레에서 선교사로 2년간 봉사하면서 갖게 되었다. 윈켈 장로는 칠레 선교부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던 1962년에 칠레에 도착했다. 그는 그 곳에서 칠레 사람들이 회복된 교리를 열심히 받아들임에 따라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한 젊은 가족을 회상했다. "저는 그 아내에게 침례를 주고 그 남

대외 동인 회중과 함께 산송을 부르고 있는 대관장단과 칠십인 회장단



편과 함께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일지이다 그 남편이 언젠가는 교회에 들어 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윈컬 장로는 텍사스 아마릴로에서 봉사하던 두 자매 선교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 부부를 만났는데, 미국에 이민왔고 현재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 부인은 활동 회원이 아니었지만 “윈컬 장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매 선교사 한명이 그의 이름을 추적하여 찾아내었다. “자매 선교사들은 세계 이 부부가 첫번째 토론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간증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윈컬 장로는 전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 다시 만나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그는 아마릴로로 날아가 그 남편과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윈컬 장로는 1942년 5월 17일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페퍼딘 대학에서 경영 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브리감 영 대학을 다니던 중에 카렌 하트를 만나 1966년 8월 3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아홉 자녀의 부모가 되었고 현재 유타 주 프로보에서 살고 있다.

윈컬 장로의 부친은 캘리포니아에 비버림버라는 제재소를 설립했다. 윈컬 장로는 부친이 하던 일을 이어 받아 캘리포니아 아카타에 있는 제재소를 매입했다. 일곱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모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거들어 여름 방학 때와 주말에 함께 일했다. “우린 모두가 손톱에 톱밥이 끼어 있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윈컬 장로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구세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예언자를 사랑합니다.”라고 윈컬 장로는 말했다. “저는 제가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 간증은 계속해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로버트 에스 우드 장로는 옛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열 두 살때 교회에서 첫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 상호향상회에서 음악 지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했다. 첫째, 그는 노래를 부를 줄 몰랐다. 둘째, 그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청년 회장은 저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 로버트, 하나, 둘, 셋, 넷’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허공을 저었다. ‘저는 그렇게 음악 지휘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자녀의 막내로 태어난 로버트는 1936년 12월에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잭 우드와 블랑쥬 우드 사이에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디시 레이

존스를 만났다. 그후 그는 1957년부터 1959년까지 프랑스 선교부에서 봉사를 했다. 로버트가 역사학 분야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 복학하면서 디시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얼마간 데이트한 후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로버트, 계속해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으시겠어요?’ 그는 확고한 대답을 했고, 그들은 1961년 3월 27일에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부부는 메사추세츠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획득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 문제에 전문가로서 그는 하버드 대학, 밴들리 대학, 버지니아 대학에서 가르쳤다. 최근에 그는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드에 있는 미국 해군 학교에서 해전 연구 센터의 학장으로 재직했다.

우드네 네 딸과 여덟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로 우리 가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자녀를 4명 주셨습니다. 둘째, ‘계속해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던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지 못했더라면 제 직업에 있어서나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드 장로는 칠십인에게 요구되는 많은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제 약점이 무엇이든 제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4월의 눈이 태버네를 바깥에 있는 대회 방문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교회 정책에 따라 대회 특집호에는 각 스테이크/지방부의 소식이 실리지 않습니다.